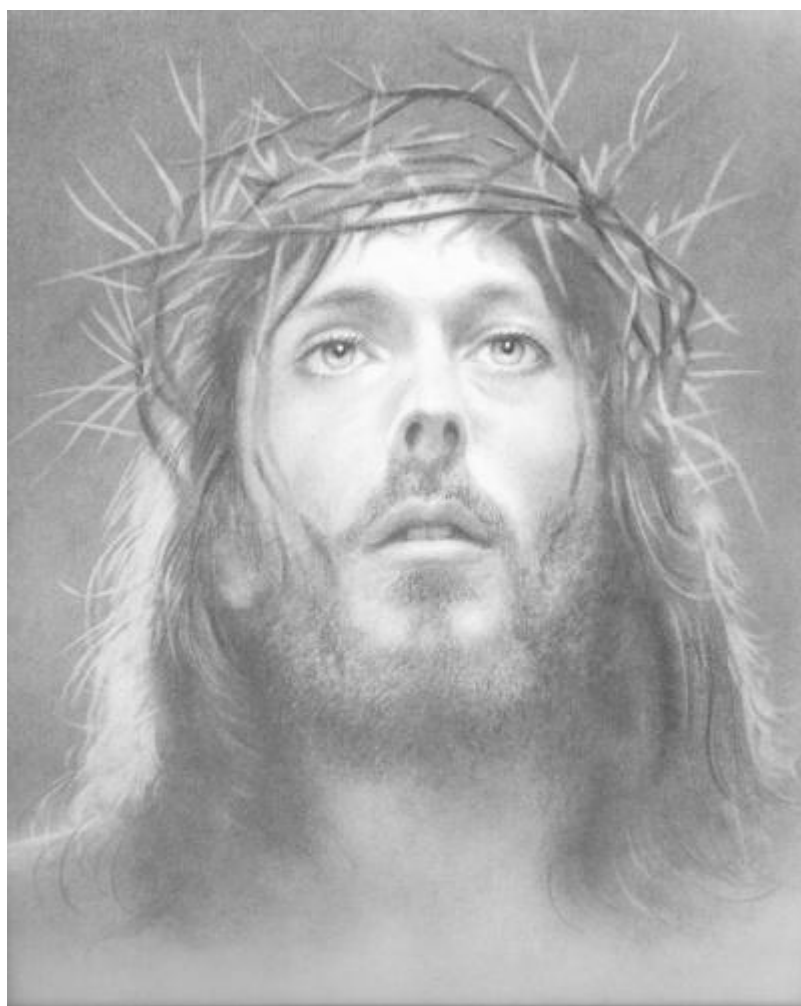


# 만남

2014 3  
통권 182호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신부님 칼럼                    | 사순을 준비하며 -----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되찾은 양의 비유 ----- | 6  |
| 주임신부님 교리                  | 교리 56~58-----   | 9  |
| 우리들의 이야기                  | 가정기도 -----      | 13 |
| 공동체 소식                    | -----           | 14 |
|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           | 17 |
|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           | 18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19 |
| 미사안내                      | -----           | 20 |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일반 지향 :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모든 문화 속에서 존중받도록 기도합시다.

#### ❖ 선교 지향 : 성소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선포를 위해 삶을 봉헌하라는 주님의 초대  
받아들이도록 기도합니다.

2014년 3월 칼럼글

## 사순을 준비하며...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순을 준비하며 칠죄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높여 보시길 희망합니다.

### 칠죄종(전통적 양심성찰)

\*칠죄종(七罪宗) 라-Septem peccata capitales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자기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peccatum proprium)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죄. 즉 교오(驕傲, 교만하고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간린(吝, 하는 짓이 소심하고 인색함), 미색(迷色, 성욕의 노예가 되어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함), 분노(忿怒·憤怒,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냄), 탐도(貪, 음식이나 재물을 탐하여 지나칠 정도로 먹고 마심), 질투(嫉妬, 우월한 사람을 시기함), 나태(懶怠,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함)등이 칠죄종이며, 이것들을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원천으로 보며, 그래서 죄원(罪源)이라고도 한다.

### 자만심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불끈 내고, 거짓 말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배하려 들고, 그들의 성공을 시기했던 적은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결점은 무엇인가?

그 결점에 민감한 이유를 아는가?

자기 결점을 남에게서 보는 것이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는 원인중 하나이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는 않는가?

완고한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도 자만심에서 나온다.

## 탐욕

돈과 시간과 재물이 선물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누며 사는가, 집착하는가?

나의 재능, 장기, 특기를 자신만을 위해 독점하는 것도 탐욕이다.

그것은 함께 나누어야 할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 욕정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았던 적은 없는가?

몸은 주님의 성전이다.

건강과 용모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없는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없는가?

나는 누구에게 집착하는가?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집착도 일종의 욕정이다.

## 분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용서하기 어려운가?

나는 실패, 좌절, 상처로부터 성장해 왔는가?(노력하였는가?)

화를 직면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가 아니면 부정하고 억누르거나 자기 탓으로 돌리는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의 많은 부분은 여기서 비롯된다.

## 무절제

절제하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음식, 술, TV, 놀이, 일 등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절제는 보통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도피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 시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이 칭찬 받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싫어하거나 질투하는가?

자기를 사실과 다르게 비하하는 것도 자기를 내세우는 좀더 은밀한 속임수이다.

따지기를 좋아하는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말마디만 듣지는 않는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내고자 하는가?

## 게으름

나는 어떤 면에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문제는 게으름인가 무력함인가? 무기력함을 게으름으로 오해하지 마라.

일상 생활 속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주 지루하고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는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영적)으로 자기 성장을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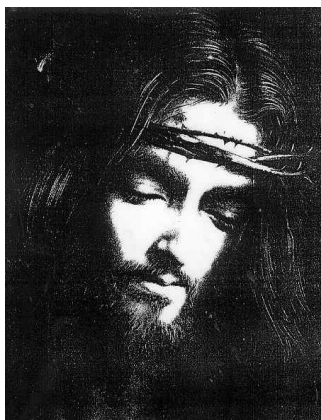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곧 게으름이다.

더 편해지지 않기 위해 문제나 도전을 피하거나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이웃들의 선익을 위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가?

더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순시기 되시길 기도합니다.



## ❖ 되찾은 양의 비유 (루카 15,4-7)

##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18장 ‘선한 사람 아흔 아홉’을 부릅시다.

##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실종노인을 찾습니다**

○ 안적사항  
- 성명: [redacted]  
- 생년월일: 08.07.22 / 1800-2200명  
- 실종장소: 남양주시 화북읍 역소리 대평동리도

○ 안상학의  
키 168cm, 가늘한 얼굴, 대머리 남색후리남, 안색은홍화 착용, 혀가 약간 굵을, 은색 구두를 신고 나감

○ 실종개요  
황기 당시 장소에서 약속터에 간다고 나간 후 현재까지 귀가치 않고 있음

○ 연락처  
- 남양주경찰서 강력4팀 : 031) [redacted]  
- 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3 [redacted]  
- 전국 국번없이 112, 182

※ 활동: 24시간 24시간  
**남양주경찰서장**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 젼마/나이: 7~8세/11kg**  
**비글 여아/덩치가 큼/갈색점박이**  
**성대수술, 중성화수술 함/이름표 착용**  
**5월 16일 아침 7시 포천시**  
**번지에서 집을 나감/**

**사례금 50만원**

※ 가족같은 강아지입니다. 보신분은 꼭 연락주세요!!  
010- [redacted]  
010- [redacted]  
010- [redacted]

##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다면,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인생이 아주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짧은 시간, 20년, 40년, 80년 동안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발견하고 믿기 위해 이곳에 보냄을 받았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기 위해 그리고 그다음으로 당신의 형제자매를 역시 서로에게 속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임을 알도록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당신은 당신과 이웃들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또한 치유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세워진 모든 구분, 분리 그리고

장벽이 있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과 가슴에는 하나 됨이 있었다. 당신은 그 하나 됨으로부터 잠시 동안 이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

-<영성의 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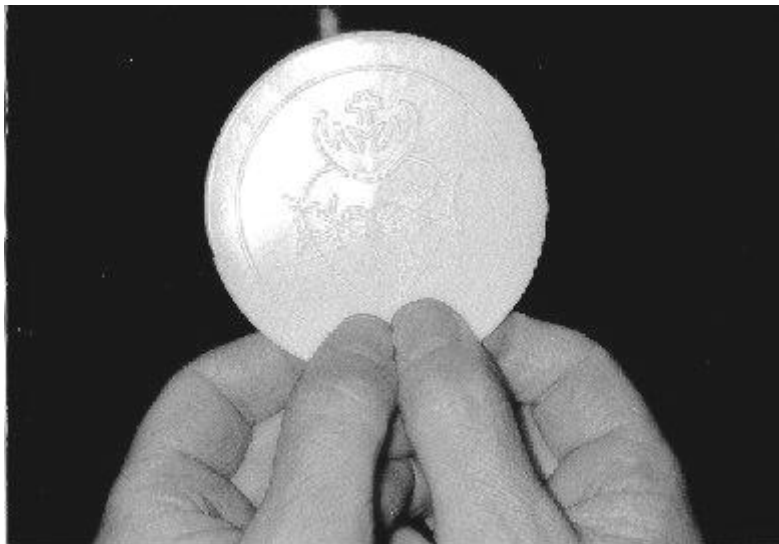
####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하거나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를 부릅니다.





## 교리56

## 성경 길잡이 (25)

**구원의 역사**

1948년, 가톨릭교회의 교황청 성서 위원회는 성경 안의 역사는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언명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여 기록했던 대로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먼저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된 가문과 지파와 민족의 기억 모음집입니다. 흔히 이러한 역사는 과거를 정확히 재생시킬 수 없어 민간전승이라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재구성 과정에 의존합니다. 성경 역사의 초점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맞춰져 있으며, 이 때문에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과 인간 만남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일에 관여하게 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제로 현존하시며 섭리를 펼치시는 하느님을 받들어 모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역사와 친숙해질 때, 교의발전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더 오래된 책들과 더 새로운 책들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면, 더 오래된 책들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의아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지혜와 영감에 마음을 열면 열수록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계획을 그만큼 더 철저하게 알려 주시기 위해 점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

성서학자들은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을 신명기와 똑같은 신학적 관점에서 생겨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섯 책을 신명기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이 책들은 구두와 글로 남겨진 이야기들을 편집한 것들로서 통속적 이야기, 민간전승, 목격자 전기, 임금들의 연대기, 민간설화, 공문서, 세금 보고서 외에 다른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매끄럽게 다듬어진 상태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수집된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진 뒤에 신명기계 신학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맞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는 갑작스런 장면 전환이나

중복 또는 모순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가 신명기계 역사서가 기원전 620년경의 여러 사료 중에서 가장 먼저 구성되었다는 설을 내세웁니다. 이 역사서는 바빌론 유대 시대 때인 기원전 550년경 지금의 형태로 수정되어 편집되었으며, 모세의 죽음(기원전 1210년)으로부터 바빌론 유배(기원전 550년) 때까지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왜 쓰였을까? 기원전 550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은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시민전쟁으로 독립 왕국으로 갈라진 그들은 결코 그들이 바랐던 위대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고, 기원전 587년 바빌론은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살아 남은 이들은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이 정말로 참된 한 분 하느님이셨을까?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이 그토록 비참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인가? 그들이 여전히 하느님의 백성인가? 그들을 위해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까? 신명기계 역사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 합니다.

## 교리57

### 성경 길잡이 (26)

#### 신명기계 역사서 2

신명기계 역사서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 계시다고 단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계약에 충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자주 충실하지 못한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벌로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550년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느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과거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더 큰 황폐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명기계 신학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순종은 보상을 받고 불순종이 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느님의 최후 심판은 오직 죽은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적 죄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 필연적으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신명기계 신학의 또 다른 결점은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하느님께 대한 접근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신명기계 저자들은 하느님이 어떤 것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과 하느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때때로 하느님이 죄스런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로 그 결정에 대해 벌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기 하권 24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느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기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그 인구조사를 이유로 벌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성경 저자들이 받은 하느님의 영감이 그들의 한계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 저자의 불완전한 신학을 마주하며 하느님의 인과관계는 성경 전체에 비추어 이해할 때,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비추어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계 신학의 결점은 인정되지만, 그 신학의 초점이 하느님의 존재의 드높으심과 순종의 가치에 맞춰진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놓고 모든 선택을 하느님의 뜻에 응답할 기회로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 교리58

### 성경 길잡이 (27)

#### 신명기계 역사서 - 여호수아기

여호수아기라는 명칭은 모세의 후계자인 주인공 여호수아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요르단 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의 거주자들을 정복하였으며 어떻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나누어졌는지 전해줍니다.

여호수아기의 주요 목적은 하느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심에 충실하심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실제로는 수 세기가 걸린 사건들을 몇 년으로 압축하는 ‘약속의 땅’ 정복에 대한 이상적인 서술 내용을 담은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티나를 침공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을 차츰차츰 정복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이 여호수아기 배경 역사의 핵심

입니다. 그 핵심적 역사와 더불어 고고학으로는 입증될 수 없어 민간전승으로 분류되어야 할 예리코의 강습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들의 목적은 현대적 의미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근거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현대적 의미의 역사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여호수아기와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에 있는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문제는 자주 반복되는 문제로 바로 하느님이 유다 백성을 반대한 사람들의 대량 학살을 명하셨다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살해를 명하시는 것으로 가정하였던 성전(聖戰)에 관한 내용이 그런 전쟁이 일어난 지 700년 후 쯤, 즉 유다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들을 사형에 처했던 수많은 성전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의도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성전들은 여호수아기나 그 밖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듯이 실제로는 기원전 550년 당시의 유다인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였을 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의 유다인들은 외국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이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혹에 한껏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계 저자들의 경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을 멀리하라. 우리 조상은 그렇게 하였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이교도들을 남김없이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받았다. 적어도 우리는 이교도들을 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해석은 한층 더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으로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실제로 성전(聖戰)과 무죄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적 학살을 위탁하셨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의문제기 자체가 성경의 영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옛 이스라엘인들의 인식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인식 상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메시지 곧 영감을 받은 저자가 지향하는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이교도의 파멸을 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독자들이 이교도의 신앙에 현혹되어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안네 신부

## 가정 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제적 은혜와 역할에 부합하게 생활하도록 가정을 교육시킨다. 결국, 세례성사에서 나오고 혼인성사에서 수행되는 신자의 사제직은, 부부와 가정이 가지는 사제적 소명과 사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그들의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변형된다.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영광에 자신을 봉헌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아버지와의 기도어린 대화를 통해서 이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 기도에는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이다. 기도에서의 일치는 세례성사와 혼인성사가 부여한 일치의 결과인 동시에 요청이다. 자신의 현존을 약속하시던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단 두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가정 기도는 가정생활 자체를 그 목표로 삼고, 가정생활은 아무리 상황이 상이해도 하느님의 부름으로 파악되며 그 부름에 대한 자녀다운 응답으로써 사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출생과 생일잔치, 이별과 돌아옴, 중요하고 장기적 결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어린 개입을 표시해 준다. 그것들은 감사와 간청의 적합한 시기, 하늘에 계신 공동의 아버지의 섭리에 신뢰하며 가정을 맡기기에 합당한 시기로 파악되어야 한다. 가정 교회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품위와 책임은 겸손과 신뢰어린 기도 중에 간청되기만 하면 분명히 내려질 하느님의 한없는 도움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 59항)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3일 | 가 밀 라<br>(St. Camilla) | 허(이)명자 | 19일 | 요 셉<br>(St. Joseph) | 손 대 조<br>이 현 묵 |
|----|------------------------|--------|-----|---------------------|----------------|

❖ 3월 지방 공동체

|     |                         |        |     |                      |                  |
|-----|-------------------------|--------|-----|----------------------|------------------|
| 9일  | 카타리나<br>(St. Catharina) | 박미량(H) | 19일 | 요 셉<br>(St. Joseph)  | 문지서(H)<br>이재홍(O) |
| 13일 | 살 롬                     | 현우(H)  | 27일 | 리 디 아<br>(St. Lydia) | 신수진(O)           |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        |            |                                     |
|--------|------------|-------------------------------------|
| 3월 19일 | ⌄박기옥(요세파)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br>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3월 22일 | ⌄박춘식(니콜라오) |                                     |

❖ 우리들의 정성 ❖

| 주 일  | 1월 26일 | 2월 2일  | 2월9일   | 2월 16일 | 2월 23일 |
|------|--------|--------|--------|--------|--------|
| 계(€) | 238.13 | 272.47 | 194.10 | 179.38 | 188.92 |

## ❖ 3월 성가번호

| 3월  | 입 당 | 봉 헌      | 마 침 |
|-----|-----|----------|-----|
| 2일  | 480 | 510      | 280 |
| 7일  | 115 | 226, 122 | 124 |
| 9일  | 116 | 221      | 124 |
| 16일 | 72  | 517      | 123 |
| 23일 | 119 | 213      | 122 |
| 30일 | 489 | 513      | 490 |

##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 2월  | 독 서                    | 제 병 봉 헌              | 복 사                     | 카페<br>봉사 |
|-----|------------------------|----------------------|-------------------------|----------|
| 2일  | 이수용(필립보)<br>김순임(안나)    | 최화영(시몬)<br>최종금(로사)   | 이정수(토마스)<br>이현묵(요셉)     | 청년부      |
| 9일  | 김치수(도밍고)<br>김영희(클라우디아) | 김부남(베드로)<br>박우연(루치아)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최장용(레오) | 1구역      |
| 16일 | 본당 사순피정                |                      |                         | 봉사자      |
| 23일 | 정명옥(살로메)<br>박주영(비비안나)  | 강신행(토마스)<br>이순자(마리아) | 손대조(요셉)<br>곽케빈(요셉)      | 2구역      |
| 30일 | 백정선(토마스)<br>이영자(헬레나)   | 김동수(시몬)<br>강신자(벨라데타) | 손대조(요셉)<br>박주영(비비안나)    | 3구역      |

## ❖ 자진헌납금 ❖

1월 26일 - 2월 16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정정숙, 이수웅, 현영애, 손수희, 박귀동, 민경화, 임정희, 이공종, 육종인, 배성우,  
권지연, 강신행, 이정수, 이기열, 진윤희

구좌입금 :

최성자, 허두욱, 김치수, 윤용기, 최형식, 곽케빈, 허길조, 홍경영, 서유미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3월 5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은총과 회개의 사순시기 되시길 바랍니다. 재의 예식은 19:00 만남성당 밑 강당입니다.
2. 본당 사순피정은 3월 15일(토) 13:00부터 21:00까지, 16일(주일) 13:00부터 19:00까지입니다. 교중 미사 시간은 16일(주일) 16:00 강당입니다.
3. 3월 21일(금)-23일(주일)은 교환사목시기입니다. 우리 본당에는 에센본당 김지수(아브라함) 신부님께서 방문하시고,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프랑크푸르트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4. 3월 26일(수)-29(토)까지 사목관계자 연석회의와 꾸르실료가 있습니다. 27일(목) 미사는 없고, 28일(금) 4구역 소공동체는 구역장님 주관아래 이루어집니다.

## ❖ Bremen 공동체 소식

1. 2월 19일에 공동체 회장님 댁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가졌고, ‘초대’를 주제로 한 말씀에 관해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새로운 봉사자를 맞이하였습니다.

##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월 정기 기도 소공동체 모임은 22일(토) 17:00에 부종배(스테파노), 이경희(엘리자벳)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2. 강리나(리나) 자매님이 Fachhochschule Osnabrück (뮤지컬 전공) 졸업연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                      |        |             |                |                                  |
|----------------|---------------------|----------------------|--------|-------------|----------------|----------------------------------|
| 사 목 협 의 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 장         | 한 말 조<br>마리안나  | 040/ 5069 7342<br>0157 7021 0466 |
| 구 역 장 모 임      |                     |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구 역<br>분과장  | 회장단            |                                  |
| 주 일 학 교        |                     | 매주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교 사         | 이 선 주<br>로 사   | 0176 7636 2699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목요일<br>17시 00분 | 만남성당   | 회 장         | 김 진 호<br>프란치스코 | 040/ 3742 0006                   |
| 레 지 오<br>마 리 애 | 믿음의 샘 Cu.           | 매월 첫째 목요일<br>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강 순 행<br>말가리다  | 040/ 297 543                     |
|                | 자비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 장         | 이 순 자<br>마 리 아 | 040/ 732 1104                    |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br>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김 영 희<br>클라우디아 | 040/ 532 4138<br>0177 724 6335   |
|                | 사랑의 모후 Pr.<br>(청년반) | 매주 화요일<br>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박 성 아<br>베로니카  | 0176 8011 2329                   |
| 구 역            |                     | 1구역                  | 구역장    | 최 화 영 시 문   |                | 8903264                          |
|                |                     |                      | 총 무    | 김 정 숙 마르타   |                | 8322587                          |
|                |                     | 2구역                  | 구역장    | 허 채 열 크리스티안 |                | 5709734                          |
|                |                     |                      | 총 무    | 김 수 희 모니카   |                | 04106-72958                      |
|                |                     | 3구역                  | 구역장    | 김 형 웅 야고보   |                | 6310912                          |
|                |                     |                      | 총 무    | 김 정 자 잼 마   |                | 6310912                          |
|                |                     | 4구역                  | 구역장    | 정 명 옥 살로메   |                | 6448623                          |
|                |                     |                      | 총 무    | 이 순 자 마리아   |                | 41091742                         |

## ❖ 2014년 3월 ❖

| 일  | 요일 | 축 일                                     | 기관·단체 행사                              | 비 고                  |
|----|----|-----------------------------------------|---------------------------------------|----------------------|
| 1  | 토  | 삼일절                                     |                                       | 브레멘                  |
| 2  | 일  | 연중 제8주일                                 | 사목협의회                                 |                      |
| 3  | 월  |                                         |                                       |                      |
| 4  | 화  |                                         |                                       |                      |
| 5  | 수  | 재의 수요일                                  |                                       | 19:00 강당 - 전례부       |
| 6  | 목  | 경칩                                      | 꾸리아                                   |                      |
| 7  | 금  |                                         | 1구역 소공동체                              |                      |
| 8  | 토  |                                         |                                       | 오스나브뤽                |
| 9  | 일  | 사순 제1주일                                 | 청년부 소공동체                              |                      |
| 10 | 월  |                                         |                                       |                      |
| 11 | 화  |                                         |                                       |                      |
| 12 | 수  |                                         |                                       |                      |
| 13 | 목  |                                         | 마리아 요셉 소공동체                           |                      |
| 14 | 금  |                                         | 2구역 소공동체                              |                      |
| 15 | 토  |                                         | 본당 사순피정 13:00 강당                      | 하노버 미사 없음            |
| 16 | 일  | 사순 제2주일                                 | 교중미사 16:00                            | 강당                   |
| 17 | 월  |                                         |                                       |                      |
| 18 | 화  |                                         |                                       |                      |
| 19 | 수  |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br>동정 마리아의 배필<br>성 요셉 대축일 |                                       |                      |
| 20 | 목  |                                         |                                       |                      |
| 21 | 금  | 춘분                                      | 교환사목 함부르크<br>- 에센 신부님<br>3구역 소공동체     | 본당 신부님 출장-<br>프랑크푸르트 |
| 22 | 토  |                                         |                                       |                      |
| 23 | 일  | 사순 제3주일                                 | 교환사목 사순 특강                            |                      |
| 24 | 월  |                                         |                                       |                      |
| 25 | 화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아치에스                                  | 꾸리아                  |
| 26 | 수  |                                         | 사목관계자 회의                              | 회장단                  |
| 27 | 목  |                                         | 여성 13차 꾸르실료 - 30일<br>17:00<br><br>연령회 | 본당 신부님 출장<br>평일미사 없음 |
| 28 | 금  |                                         | 4구역 소공동체                              | 구역장 주관               |
| 29 | 토  |                                         |                                       |                      |
| 30 | 일  | 사순 제4주일                                 |                                       |                      |
| 31 | 월  |                                         |                                       |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hhmammam@gmail.com

###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       |                   |                                                |
|-------|-------------------|------------------------------------------------|
| 발 행 인 |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 viannae@hanmail.net<br>H.P : 0176 8464 7981    |
| 편 집 인 |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 cdnamgoong@hanmail.net<br>H.P : 0176 3900 7430 |
|       | 최 영 자    파울라      | dada1311@nate.com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소공동체 17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